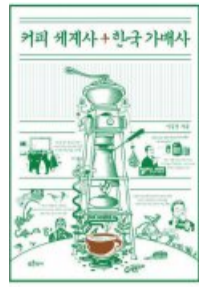


커피로 맛보는 세계사, 역사로 만나는 커피이야기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해를 건너 예멘 모카 지역에서 경 작되기 시작하면서 상업 작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됐다...

세계의 커피사와 한국의 커피사를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서 다룬 책이 출간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이길상 박사의 '커피 세계사+한국 가배사'가 그것...

현재 가장 많은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는 브라질이다. 이어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가 뒤를 잇는다.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우리나라의 커피 수입량은 어느 정도일까. 2018년 기준 세계 6위이며 성인 1인당 연간 353잔의 커피를 마신다...

저자에 따르면 인류가 커피를 음료 형태로 마시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이전이다. 이보다 앞선 6-7세기부터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입증할 근거는 없다...

한다.

알려진 대로 커피 기원 전설은 에티오피아의 염소 목동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윌리엄 우커스는 1922년 커피 역사를 다룬 '올 어바웃 커피'를 출간하면서 '커피 음료의 전설적 발견, 칼디와 춤추는 염소들'이라는 그림을 삽입했다...

유럽 커피 문화의 급격한 변화는 에스프레소 추출 기계의 등장에서 비롯됐다. 높은 압력을 가해 추출하는 진한 커피는 이탈리아인 루이지 베제라가 개발한 에스프레소 머신이었다.

조선 사람으로는 윤종의(1805-1886)가 최초 커피 기록을 남겼다. 1848년 완성한 '벽위신편'을 1852년 개정하면서 필리핀을 소개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커피를 소개했으며, 최한기(1803-1877)는 '지구전요'(1857)에서 커피를 언급했다.

커피 광고가 처음 신문에 게재된 것은 '독립신문'(1896년9월15일)이었다. 독일인 알버트 F. 고살키가 정동에 개점한 곳에서 '새로 로스팅한 모카 커피 원두를 1파운드에 75센트, 자바 커피를 70센트에 판매한다'는 광고가 등장했다.

1978년은 한국 거리에 자판기가 등장한 해였다. 3월 22일 종각, 시청, 서울역 세 곳에 설치됐으며 한 잔 가격이 100원이었다. 1978년 당시 서울 시내 다방 수를 넘어설 만큼 자판기가 일반화됐다.

책을 읽다 보면 다양한 화제와 함께 그윽한 커피의 풍미를 느끼게 된다. 막바지 무더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겼으면 한다.

〈푸른역사·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스카이라이트

주제 사라마구 지음, 김승욱 옮김

때는 1952년 포르투갈 리스본,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오로지 생계만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파트 1층에 사는 구두장이 실베스트르와 마리아나 부부는 빈방에 세입자를 들이기로 결정한다...



1층의 실베스트르 부부 집에 들어온 세입자 아벨 노게이라라는 틀에 갇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 어떤 가치도 두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청년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자 '눈 먼 자들의 도시'의 거장 주제 사라마구의 사후 유일한 유고작 '스카이라이트'. 섬세하고 간결하게 인물을 묘사하고 진부한 상황에서도 심오함과 보편성을 찾아내는 작품이다...

소설의 배경은 1940년대 후반 리스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살라자르의 독재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의 그림자가 사회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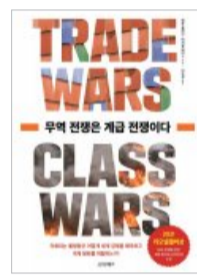
〈해냄·1만7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역전쟁은 계급전쟁이다

매튜 클라인 외 지음, 이은경 옮김

일반적인 무역 분쟁은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무역 분쟁이 부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내 정치적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 평론가인 매튜 클라인과 카네기 국제 평화기금 선임연구원 마이클 페티스는 악화되는 불평등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왜곡하는지를 주목한다. 이들이 공동으로 발간한 '무역전쟁은 계급전쟁이다'는 무역 전쟁을 종식시키려면 계급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오늘날 무역 전쟁 기원을 지난 30년 동안 중국, 유럽, 미국 정치인들과 세계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에서 찾는다. 특히 중국과 독일에서 증가하는 불평등이 경제에 끼친 피해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두 저자는 소득 불평등과 지나친 미국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 자본 흐름의 파괴된 체제를 미국이 개혁해야 한다는 견해다.

아울러 저자들은 "극도로 불평등한 소득분배로 인한 피해는 세계 금융과 금융 시스템을 통해 다른 나라로 확산되었다"는 경제학자인 흡슨은 통찰력에 주목한다. 지역적 과제와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이 지점에서 맞물린다.

〈시그마북스·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당신의 수식어

전후석 지음

30대 청년, 변호사, 영화감독, 재미 한인, 디아스포라... 이 같은 여러개의 수식어를 가진 전후석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당신의 수식어'를 펴냈다.



국내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헤로니모'로 이름을 알린 저자는 미국에서 태어나 3살 때 한국으로 와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다시 미국으로 가 영화와 법을 공부한 재미 한인이다. 미국 코트라(KOTRA)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그는 휴가차 떠난 쿠바에서 우연히 '헤로니모'라는 인물을 알게 되고, 그 길로 영화의 세계로 뛰어 들었다.

책은 '우연이 바꾼 나의 세상', '정체성의 조각들', '디아스포라라는 수식어', '헤로니모, 세상에 나오다', '경계인의 가능성' 등 총 5부로 구성됐다. 저자가 쿠바에서 한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역사적 인물 '헤로니모'를 알게 된 순간부터 세계 곳곳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난 경험 등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찾은 다양성과 정체성의 가치를 전한다...

저자는 "우리가 민족·인종·언어·지리적 경계 등을 초월하여 다양성과 혼합성을 받아들일 때 확장된 자아를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정신"이라고 강조한다.

배우 정우성은 추천사에서 "저자는 경계의 벽을 깨고 더 큰 세상의 한가운데에 설 수 있었던 이야기를 전한다. 독자들에게 이 책이 '더 큰 정체성'을 찾는 여정에서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비·1만6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신축사옥 임대문의 환영

※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밥전문점 등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 잔치

■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 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대출상담 환영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관리형 토지신락 사업비 대출 전세(임차)자금 대출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